대 학 주 보
〈1115호〉
1997년 3월 31일 월요일

□조교 사회를 진단한다

‘수난 시대’ 저임금 고급 인력

적은 인원,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깨뜨려야 할 고질적 관행

흔히 대학을 지식의 상아탑이라 지칭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대학원은 최상위 학문 탐구의 장이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대학원생은 평생을 학문연구에 이바지하고자 결심한 이들이다. 그러나 조교직을 겸한 학원생들에게 학문의 길은 멀기만 하다. ‘교수님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 넣는 방법은? 조교에게 시킨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조교는 학과 업무의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학술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조교제도를 모색하고자 본란을 기획했다.
〈편집자〉

대학원 석사과정 1기생인 P는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조교직을 맡았다. 아침 9시 연구실에 도착. 실험기기를 점검하고 연구실을 청소하니 어느새 수업시간이다. 책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수업에 참석한다. 오후 2시, 한숨돌릴 때쯤 학생 서너명이 기간이 지난 레포트를 들고 와서 사정한다. 평소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는 P는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든 레포트를 채점하기 시작한다. 어느새 학부생 실험시간. 그러나 실험 자재가 충분치 않아서 두팀이 번갈아 기구를 사용하느라 실험이 늦게 끝난다. 실험실 정리를 모두 마치고 P가 연구실로 돌아온 시각은 6시.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피로가 밀려와 내일 수업 전에 읽어야 할 원서들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처음 P는 깊이 있는 연구활동도 해보고 학자로서의 길도 다져보겠다는 다짐으로 대학원 진학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점차 조교 업무에 지치는 자신을 발견한다.

학비도 빠듯한 장학금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이 대다수 조교들의 일상이다. 원래 조교는 학과의 행정사무를 도와주고 교수님들의 연구를 협조하는 보조자이다. 그러나 현 조교들의 업무 범위는 실로 방대하다.

작년 경희대 조교 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교직을 수행하는 이유는 선배 또는 교수의 권유,보다 깊은 연구를 위해서 등이 있으며 학비 조달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4년을 마치고 납학생의 경우 군대까지 다녀온 상황에서 대학원 등록금까지 부모님께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반 장학금 부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장학금이 대학원 조교의 급여와 함께 책정되어 있어 일반 학생들은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조교직을 맡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장학금 명목으로 받는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균등하지도 않다. 조교 A가 등록금 전액을 받는데 B는 반액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실습조교의 경우 실습비만 면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조교의 업무상 외출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식비는 기대할 수 조차 없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물리, 치의예, 약학, 한의학과 등 지원해야할 실험이 많은 화학과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교직을 수행해야 하고 이들이 받는 장학금은 월당 15만원에 불과하다. 한정된 장학금을 많은 인원이 나누려다 보니 그 이상 배당하기는 힘들고 급기야 보다 못한 화학과 교수님들이 자신의 봉급에서 일정액을 떼어 장학기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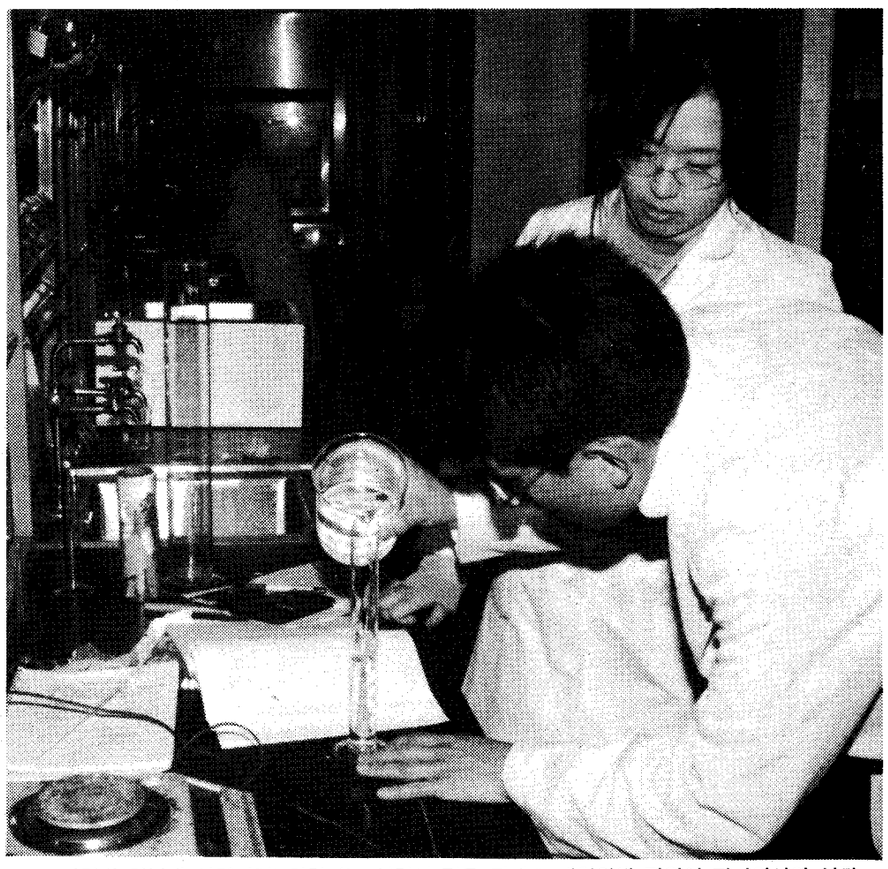
관습이 된 과다한 업무

그래도 업무량에 비하면 돈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공부를 하기위해 대학원에 진학했으므로 제대로 공부할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어느정도 극복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과다한 업무량은 조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5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데다가 사무 교직원 없이 조교 2~3명이 과내 모든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다. 학부제가 되면서 사정은 더욱 어려워져 학부조교를 맡고 있는 정경대의 한 조교는 실험실습비 예산 편성에서 수강신청 안내 접수까지 무려 51개나 되는 일을 혼자 해내야 한다. 교직원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경험과 사제간의 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조교라는 단기간의 직책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조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는 있지만 다수가 이를 하나의 관행처럼 “원래 조교란 그런거야”라는 안일한 자세로 방관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가능성이 없는 고질적 관행은 지키는 것보다 깨뜨릴 때 더 큰 의의를 갖는다. 현 조교 제도에는 개혁되야 할 관습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열악한 근무수당을 들 수 있다. 우리학교 조교들의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70%이상이 25세에서 30세 사이이다. 즉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현 실정에서는 독립된 생활은 커녕 등록금 조차 부모님께 의지해야 할 형편이다. 조교가 책임감 있게 학과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어도 일정한 생활은 유지가능한 대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다한 업무량 또한 제고되야 할 사항이다. 조교에게 희생은 이미 미덕의 정도를 벗어난 듯하다.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조교 1인이 2백40명의 학부생을 관리해야 한다. 처음 몇몇 학생에겐 수강신청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2백40번째 학생에게 설명할 때 쯤은 아마 인내력의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학부생에게 제대로 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조교 인원을 늘이거나 그외 교직원 채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명확치 않은 근무 범위또한 조교 업무를 무한대 늘리는 요인이 된다. 사실 이것저것 학과의 잔심부름은 조교가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무외 일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조교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다. 다수가 조교를 학과의 잔업이나 맡아하는 아르바이트생 쯤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들은 학과 사무행정 담당자이기 이전에 학문에 뜻을 둔 예비학자이다. 따라서 그들이 조교업무로 인해 본업인 학문탐구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

많은 대학이 대학원중심의 대학을 만들고자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대학원 발전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제시하기 이전에 조교 복지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더이상 조교가 저임금 고급인력이 아닌 예비학자로서 학문탐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조교자신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강재은 기자〉



▲화학과 학부생 실험시간. 화학과는 실험이 많은 관계로 대학원생 전원이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조교 업무를 맡고 있다.

인터뷰 □조교협의회 이유신 회장

학문 연구 지망생으로 바로서기

현 조교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대부분의 조교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동안 근무하고 있고, 업무범위가 불분명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행정사무 및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있다. 특히 급여가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낮다.

조교 협의회(이하 ‘조협’이라 칭함)는 어떻게 창립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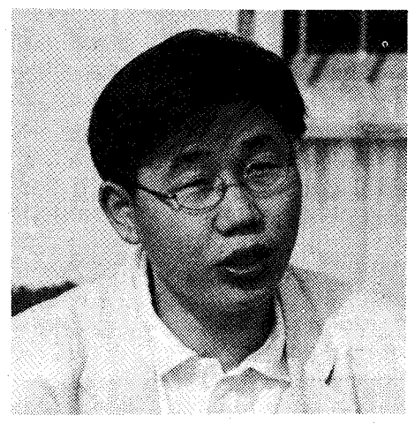
작년 등록금 협상때 조교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다. 그러나 조교들의 자치조직이 없어서 문제 의식을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가 없었다. 이런 행정적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즉시 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 작년 4월 12일 경희대 조교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조협에서 현재 어떤 일을 진행 중인가.

두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는 대학원 발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조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원 조교의 급여로 상당액 지출되고 있어 일반 학생들이 거의 혜택받지 못하는 실상을 학교측에 문제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조직되지 못했고, 조교들의 결집력이 부족해서 현재 힘든 상황이다.

조협이 운영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교들의 부당한 대우가 관행화되어 다수가 이를 당연시 여긴다. 또 과중한 업무와 학업준비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실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조협이 잘 운영되는 타학교의 예는 있는가.

성균관대와 서강대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조교복지개선방안을 학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총파업까지 불사했다. 그밖에 공동성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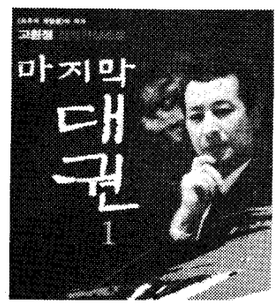
조협을 이끌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조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다. 조교는 학사행정과 교수님 연구활동의 보조자이다. 그러나 다수가 조교를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듯 하다. 실제로 학과의 잔업을 거의다 조교가 전담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조교는 권익신장 이전에 학문연구지망생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학술부〉

화제의 책

권력형 해바라기들에게 경종을

마지막 대권



작가 고원정씨의 본격 정치소설 ‘마지막 대권’은 현실 정치의 단면들을 송두리째 담아내고 있다.

실명정치인들과 현 정치판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은 올해 치루어질 예정인 대통령선거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을 흥미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신한국당 대선후보로서 이수성씨를, 국민회의 대선후보 김대중씨, 국민대표 후보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등을 등장시키는 상황에서 현실정치의 한계점을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소설은 ‘포럼 2000년’이라는 가상조직을 등장시킨다. 이 조직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각개각층의 전문가들을 포용, 대권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소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각제는 숨가쁘게 이루어지는 대선가도에 있어서 계속적인 정치쟁점으로 대두된다.

긴박한 정치일정속에서 북한 또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의든 타의든—안보라는 단어를 국민들 뇌리에 각인시킨다.

작가는 이 책에 대해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야정치인들과 권력지향적인 엘리트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혐오와 분노가 극대화될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넥타이부대와 점퍼부대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힘은 정치권 전체를 흔들어 놓는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진정한 국민후보가 그들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이라고 밝힌다. 전체적으로 기사형식의 사건전개와 각당.대변인들의 논평들 속에서 정치현실을 바꾸어 보려는 가상 주인공들의 활약상은 실명정치인들의 모습과 어우러져 하나의 탄탄한 스토리들을 전개해 나간다. 이회창과의 경선에서 승리한 이수성후보, DJP연합을 딛고 독자후보로서 등장하는 김대중국민회의후보, 전국적인 대중집회를 통해 민중후보로서 자리잡아가는 권영길후보, 막후 불밑에서 활동하는 모사가들과 포럼2000년등은 다른 어떤 소설보다도 사실성과 생생함을 담보해 내고 있다.

다음 문장은 이 책을 저술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깊게 고개숙이고 나서 권후보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결백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상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그 어떤 비참한 결과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밀고 나갑시다. 어차피 소위 대권이란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싸웁시다! 우리사회의 해묵은 매카시즘에 정면으로 부딪쳐 봅시다… 진보가 죄는 아닙니다!”

〈학술부〉

세계인의 상표
SHARP

D.A.L.시스템과 SOLVER기능이 내장된-
샤프공학용계산기!

기초공학 해법의 최고의 선택
EL-509L
권장소비자가격: ₩20,000
•2LINE DIGIT
•상:12자리(dot)
•하:10+2
•153함수
•순열조합 •통계기능
•시간계산 •분수계산
•정수메모리 3개
•수정기능(MDF)
•무작위 변수계산(RND)
•최종 정답 호출
•외형:84x145x16.5mm(WxDxH)

합리적 가격의 최적의 공학파트너
EL-520L
권장소비자가격: ₩25,000
•2LINE DIGIT
•상:12자리문자식 표시
•하:(10+2)
•194함수 통계기능
•논리연산 •최종 정답 호출
•2, 8, 16 진수 변환
•정수메모리 7개
•시간.계산 •분수 계산
•외형:84x145x16.5mm(WxDxH)

32개 물리상수 및 미터법 환산기능 채용
EL-556L
권장소비자가격: ₩28,000
•2LINE DIGIT
•상:12자리(dot)
•하:(10+2)
•287함수
•대수식기능 •통계기능
•시간계산 •논리계산
•복소수계산
•32개물리상수 •32개미터법 환산
•정수메모리 7개
•외형:84x145x16.5mm(WxDxH)

2라인의 공식과 해답을 동시 확인
EL-512SH
권장소비자가격: ₩42,000
•2LINE DIGIT
•상:12자리문자식 표시
•하:(10+2)
•173함수, 통계기능
•논리연산 •최종 정답 호출
•2, 8, 16 진수 변환
•프로그램 256 STEP
•정수메모리 13개
•4개 공식메모리
•외형:69x132x7.8mm(WxDx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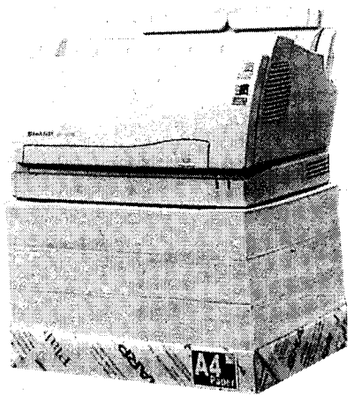
16-Digit, 3-Line의 와이드 LCD계산기
EL-5120
권장소비자가격: ₩55,000
•수의 적분 계산기능
•프로그래밍 기능
•정수메모리 27개
•통계기능
•프로그램1,211 STEP
•242함수
•대수식 SOLVER 기능
•다양한 MENU 시스템
•외형:76x145x9.8mm(WxDxH)

멀티그래픽 드로잉 기능의 프로계산기
EL-9200
권장소비자가격: ₩79,000
•깨끗하고 정확한 그래픽을 위한 고선명 LCD 16x8줄
•멀티 그래픽 드로잉(직교좌표, 극좌표, 매개변수 좌표)
•408함수 •통계학
•정수메모리27개
•메모리 호출 등
공학용 전기능 기능
•외형:80x182x19.5mm(WxDxH)

멀티그래픽 드로잉 기능의 프로계산기
EL-9300
권장소비자가격: ₩99,000
•32K RAM 23,064bytes
•SOLVER기능
-방정식 SOLVER
-99개의 방정식 저장
-방정식 반복, 뉴튼, 그래픽 해법
•EL-9200의 전기능 기능
•EL-9300과 상호 데이터 통신
•외형:80x182x19.5mm(WxDxH)

판매점
■서울 (주)삼신사무기 752-6678-9.777-4741-2 샤프OA 777-9015. 319-9015 삼신용산지점 718-3190-1 남대문계산기센터 778-0918 삼신울지로점 757-7011-2 샤프타운(주) 534-8812-4 샤프AV산업(주) 703-8818
■서울 (주)샤프비전 719-8144(대) 청계샤프 274-2480(대) 그린비전 3272-8144
■부산 코리아데이타 246-1425-6 (주)청성사무기기 464-3834 부산샤프 865-4279.7674 샤프코리아 58-2297 경진전자 865-7674 일광사창각 245-9108
■광주 삼성사무기 227-5171-2 (주)대삼전자 225-7766-8 일우상사 954-4300
■대전 대전빠이롯트사 256-9348 창신문구센타 255-7681
■인천 인천샤프 439-1107 인천전자(백) 426-2000 인천전자(동인천점) 762-2000 세광전자(동암역) 432-6633 석형엘코아(백) 511-1122
■대구 샤프랜드(주) 425-4000(대) 대명사 427-8727
■수원 조흥만물 38-3515, 37-4348 수원샤프 44-3030, 254-3030
■구리 천일전자 557-9027
■안산 안산샤프 494-3640, 482-2021
■광주(경기) 샤프하남•광주샤프 64-0050
■의정부 대한통신 877-8188-9 중앙정보 시스템 848-8811-2
■이천 이천샤프 34-3336
■성남 성남샤프 756-9211
■평택 뱅크포스 657-9588
■천안 천안샤프 551-4226
■온양 아산샤프 548-6848
■서산 샤프서산 64-2049
■청주 영진사 55-5785, 59-3137 샤프코리아 58-2297
■충주 충주샤프 847-4784
■춘천 매스콤 53-5528
■원주 원주샤프 44-8658 동아사무기 42-6864
■강릉 강릉샤프 645-4342
■동해 샤프동해 31-4425, 33-4425
■전주 샤프전주 85-8888 신도OA상사 84-3678
■남원 남원샤프 32-1110
■익산 익산샤프 52-7742
■목포 별 음악사 43-2945
■여수 여수샤프 63-2407 백산전자 63-7778-9
■포항 포항샤프 46-7046 문화사전자 47-0836
■구미 샤프구미 52-8912
■김천 샤프김천 33-5812
■창원 창원샤프 62-3100
■마산 샤프마산 44-6400 코리아데이타 46-0125
■진주 진주샤프 745-8555
■울산 샤프전자월드 60-8868-9 샤프미디어월드 60-7307-8
■제주 제주샤프 51-2119, 24-0115 광양샤프 51-1244, 21-4466 동문샤프 25-6001, 25-6002 신제주샤프 44-3355, 44-3366 서귀포샤프 62-6450, 33-9955

리포트 내기 하루 전날,
상준이 집에 꼭 가야하는 이유?



거길가면 해상도 1800dpi,
최고로 선명한 샤프프린터가 있기 때문이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도 글자가 깨지고
도형도 엉망이라 지저분해지면 교수님들도 읽기
싫으실거예요.
하지만 샤프프린터라면 A+는 문제 없어요!
해상도가 1800dpi라 어떤 프린터보다 선명하고
깨끗하거든요. 물론,저도 곧 샤프프린터를
사기로 했어요.
해상도 뿐 아니라 사이즈나 속도나 가격이나
이만한 프린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상준이네 갈 이유가 없겠죠!

국내 최고 해상도, 국내 최소형, 국내 최저소음
샤프레이저프린터 JX-9230

A/S점 본사:3663-1321 용산:3271-7421
대리점모집 품질과 기술의 샤프와 함께 샤프레이저프린터 JX-9200시리즈를 취급하실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02)3663-0761
제품문의 (02)3663-0761(대)

대리점
프린터전문점:서울(양재) (주)오라테크 578-5211/(용산) 711-4451
■서울 (용산) 엘유.이아 711-7693 (용산)삼신정보통신(주) 704-1015 (주) 넥스트시스템 439-0600
(용산) (주) 샤프비전 719-8144 (여의도) 샤프종합마트 761-1926 ■광주 제경시스템 511-1959
■부산 (주) 외영슬라이드 256-3939 샤프랜드(주) 425-4000 ■김천 샤프AV전자 33-5812
■포항 문화AV 46-7046 ■울산 샤프미디어월드 60-7307 ■창원 창원샤프 62-3100
■익산 제일정보서비스 52-7742 ■제주 제주샤프 24-0114/25-2511/25-3777/25-5500

샤프전자산업(주)